

신혼부부 가구는 왜 독립적이지 못하는가?

- 주거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

박종훈** · 이성우***

Why can't Newly-Married Household be independent of their Parents Household?*

Park, Jonghoon**, Lee, Seongwoo***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신혼부부 가구가 주거경제적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주택 특성 및 주택 정책 변수를 활용하여 주거 점유 시 부모로부터의 지원 여부와 생활비 지원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주택 시장의 공간적 이질성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항 로짓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신혼부부 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2015년도 신혼부부 가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높은 주택가격과 교통 접근성 신호는 주거 점유 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에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대출상품의 활용은 지원에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비 지원은 주거지출 항목과 정(+)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지출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부모의 지원과 신혼부부 간의 주거경제적 연관성에 주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과 이를 통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독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는 데 있다.

주제어 신혼부부 가구, 주거점유 및 생활비 지원, 주택가격, 주거환경, 주거비용 지출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eterminants of economic aid regarding housing and cost of living for the newly-married households. This study applied the binary logit model to figure out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aid from their parents for the households. With utilizing the Newly-Married Housing Survey data in 2015, this study found that housing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housing expenditure leads to the economic aid from their parents. In particular, the housing price and transportation condition increase probability the financial aid from parents when the newly-married household starts their housing career. In addition, this study

* 본 논문은 2017년 전기 지역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 박사수료(주저자: pjh1983@naver.com)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 교수(교신저자: seonglee@snu.ac.kr)

found that the items of housing expenditure increase the probability of economic aid for their cost of living. To improve the independence of newly-married household, the government should adopt the housing policy for stable housing price and alleviate the burden of housing expenditur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nalyzing the economic aid from their parents on newly-married household regarding housing economic issues and suggest the policy for independence of living from their parents.

Key Words : Newly-Married Household, Parents Household, Financial Aid, Support Policy for Newly-Married Household

1. 서론

높은 주택시장 가격에 대비한 낮은 가계소득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하여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소득 생애주기에서 성숙기에 접어들지 못한 신혼부부 가구에게는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주택시장 내 비우호적 여건은 정책적 수단에 의해 해소되지 못하고 부모세대의 자산 이전 및 지원이라는 사적 수단을 통해 경감되고 있다.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부모 세대의 주거 지원은 부모 세대의 미래 노후자산을 미리 소진한다는 점에서 부모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가적 차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혼부부의 주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들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독립에 관한 연구의 부재는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표면적 지표에 기초한 정책 제안이라는 일차원적 대처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주거경제적 측면의 독립성을 실증 분석하는 것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안정과 부모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경제적 한계에 놓인 두 가지 요인은 값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한 주택마련 문제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문제(=주거생활비)로 요약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한 실정이다. 오히려 신혼부부의 부모를 통한 경제적 의존관계가 공고해지고 있다. 신혼부부가 사회의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거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혼부부 가구가 주거경제적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지원 여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 여부를 주거 점유 시 지원과 생활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지원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항로짓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가구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주택 특성 및 금융 및 정책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신혼부부 가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전국 단위이며, 주택 시장의 공간적 이질성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해서 살펴봄, 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론에 대해서 서술한다. 4절에서는 분석에 활용한 자료 및 변인에 대해서 설명한다. 5절에서는 기초통계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 6절에서는 연구의 결론, 한계점, 향후 연구방안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한다.

2. 선행연구

국내에서 수행된 주거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점유형태 및 주택유형에 집중되어 있다(김준형·최막중, 2009; 박종훈·이성우, 2013; 박종훈·이성우, 2016; 이주형 외, 2009; 정의철, 2002; 최유미·남진, 2008). 최근에는 높게 형성된 주택시장 내 주택 가격으로 인해 대두된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성 문제 및 인구감소에 따른 자녀 출산을 개선으로 인해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박천규·이영, 2010; 배호중·한창근, 2016; 서미숙, 2013; 신영식·이현석, 2017; 안용진, 김주현, 2016; 이창효·장성만, 2016).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연구는 주거 점유형태를 중심으로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택가격, 점유형태 등과 출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신혼부부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가구의 상황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발생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Clark and Dieleman, 1996). 특히 신혼부부는 결혼 및 출산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자가 점유 확률이 증가될 개연성이 높다(Feijten and Mulder, 2002). 하지만 결혼 후 3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경우, 자가소유 확률을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박천규·이영, 2010). 자가 점유를 하지 못해 주택시장에 안정적으로 편입하지 못한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정책은 신혼부부 가구의 향후 주택구매 의향을 증진시켜(안용진·김주현, 2016) 신혼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부모의 점유형태는 자녀세대의 점유형태와 세대적 유사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드러나, 부모세대의 유·무형적 지원이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마강래·권오규, 2013; Helderma and Mulder, 2007; Kurz, 2004).

신혼부부 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동시에 혹은 이후에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한규섭, 2014; 현대경제연구원, 2014). 실제로 국내의 신혼부

부가 5년 이내에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근용 외, 2009; 마강래·강은택, 2011). 하지만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시장의 비우호적 환경은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아진 주택가격, 이에 호응하여 동반상승한 임차가격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마련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 위 현실에서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신영식, 2015). 특히, 한국의 경우 자식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이전이 서양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사적재산의 이전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경제에 주요한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희삼, 2009; 마강래·권오규, 2013)

상기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혼부부 가구와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들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점유, 자녀출산과 관련된 연구에 집중되어 수행되어 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신혼부부 가구와 부모 가구의 정서적 독립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남순현·한성열, 2003; 임유진, 2008) 주거경제적 차원에서 신혼부부 가구의 이전 세대로부터의 부의 독립성에 주목한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신혼부부 가구가 사회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가구의 독립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적 요인이 충족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대수명의 연장은 부모세대들의 노후 안정성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세대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은 부모세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부모세대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경제적 측면에서 해당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주택시장 내 형성된 신혼부부의 주거경제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3. 방법론: 항상소득 추정모형 및 로짓 모형

1) 항상소득 추정모형

항상소득 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은

가구의 소비결정 시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항상소득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지만 일시소득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설을 준용하면 신혼부부 가구가 주택 점유형태, 주택유형, 또는 금융지원 등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소득 중에서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을 고려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구입 시 또는 주거활동 영위 시 부모로부터 지원여부와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관찰소득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항상소득을 추정하여 연구모형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Goodman(1988)의 연구를 참조하여 가구의 항상소득을 추정한다.

인적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따르면 가구의 항상소득은 인적자본과 비인적자본에 영향을 받는다. 가구의 관찰소득이 항상소득과 임시소득(Transitory Income)으로 구분된다고 하면, 하단의 식 (1)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Y^M = aH + bNH + Y^T \quad (1)$$

식 (1)에서 Y^M 은 신혼부부 가구의 관찰소득을, $aH + bNH$ 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비인적 자본(Non human capital)으로 구성된 가구의 항상소득을, Y^T 는 가구의 임시소득을 나타낸다. 인적자본을 나타내는 H 는 교육 수준, 직업 등을 나타내며, 비인적자본인 NH 는 전 세대로부터의 이전소득 등을 의미한다.

항상소득은 관찰소득을 종속변수, 인적자본, 비인적 자본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상정하여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한다. 도출된 β 추정치를 활용하여 예측치(Predicted value)를 항상소득으로, 예측치(항상소득)와 실측치(=관찰소득)의 차이인 잔차(Residual)를 임시소득으로 활용한다. 소득 추정을 위한 함수형태는 하단의 식 (2)와 같다.

$$\frac{P_i^{M^k} - 1}{\lambda} = \delta_0 + \sum_n \delta_n X_i + E_i \quad (2)$$

식 (2)에서 X 는 독립변수의 공변량(Covariate) 벡터이며, δ 는 공변량 벡터의 계수(Coefficient)를, E 는 오

차항을 나타낸다. 효율적 추정을 위해 종속변수인 관찰소득을 정규분포 형태로 변환하는 Box-Cox 변환¹⁾을 적용하였다. Box-Cox 변환시 사용하는 람다(λ)는 제공된 형태가 항상소득 추정에서 최적의 형태임을 제시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기존의 연구와 동일하게 0.5를 적용하였다(박종훈 · 이성우, 2016; Goodman, 1988; Lee, Myers and Park, 2000).

2) 이항 로짓모형

본 연구에서는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부모의 지원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항 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적용하였다. 이항 로짓모형은 아래의 식 (4) 같이 표현된다(이성우 외, 2005; Madala, 1983).

$$y^* = \sum_{k=1}^K \beta_k x_k + \varepsilon \quad (4)$$

위 식에서 종속변수(y)는 신혼부부 가구가 부모에게 지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y 는 아래의 식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Liao, 1994).

$$y = \begin{cases} 1 & \text{if } y^* > 0 \\ 0 & \text{Otherwise} \end{cases} \quad (5)$$

여기서 신혼부부 가구가 지원을 받는 경우 y 는 1로 표현되며,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y 는 0으로 나타낸다. 위의 식 (4)와 식 (5)를 통해 아래의 식 (6)을 도출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Prob}(y = \text{지원받음}) &= \text{Prob}\left(\sum_{k=1}^K \beta_k x_k + \varepsilon\right) \\ &= 1 - F\left(-\sum_{k=1}^K \beta_k x_k\right) \\ &= F\left(\sum_{k=1}^K \beta_k x_k\right) \end{aligned} \quad (6)$$

위의 식 (6)을 통해 이항선택 확률이 오차항의 CDF 함수인 $F(\varepsilon)$ 로 정의됨에 따라 이항 선택성을 가진 본 연구모형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항상소득 변인은 본 연구모형에서 통제하는 독립변인 일부와 유사한 연유로 다중공선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모형에 설정된 변인 특성이 동일한 경우, 항상소득 추정모형과 최종 연구모형의 변인 성격을 달리하여 통제하였다. 또한 최종 연구모형에서는 다중공선성 분산팽창인자(VIF)를 활용하여 탐지, VIF가 10 이하²⁾인 변인만을 통제하여 추정모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4. 자료 및 변인설명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가구패널 실태조사 201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결혼연수가 5년 이내³⁾인 신혼부부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로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인구, 사회경제적, 주거 특성 등의 다양한 변인을 자료에 내포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가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활용에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 통제한 변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신혼부부 가구가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주거를 영위하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혼

<표 1> 변인설명

변인	변인설명	모형 1	모형 2
종속변인			
주거 점유 시 보조	보조받음 = 1, 보조 안받음 = 0	○	
생활비 보조 지원	보조받음 = 1, 보조 안받음 = 0		○
독립변인			
가구주 연령	연령 1: 29세 이하 연령 2: 30~34세 이하 연령 3: 35~40세 이하 연령 4: 40세 이상(참조집단)	○	○
결혼연수	1~5년	○	
자녀 유무	자녀 있음 = 1, 자녀 없음 = 0	○	
맞벌이 여부	맞벌이 = 1, 외벌이 = 0	○	○
항상소득	항상소득	○	
항상소득 제공	항상소득×항상소득	○	
임시소득	임시소득	○	
임시소득 제공	임시소득×임시소득	○	
주거비 지출	주거비/총 가계 지출액		○
교육비 지출	교육비/총 가계 지출액		○
이지비용 지출	이지비용/총 가계 지출액		○
가구주 교육수준	교육수준 1: 고졸 이하 교육수준 2: 전문대 졸 교육수준 3: 대졸 이상	○	
가구주 직업수준	직업수준 1: 경영관리직, 전문직 직업수준 2: 자영업, 판매 및 서비스직 직업수준 3: 기능공, 일반직업, 사무기술직, 무직 및 학생	○	○
주택유형	아파트 = 1, 그 외 = 0	○	
점유형태	자가 = 1, 차가 = 0	○	
주택가격	주택가격(자가 가격기준)	○	
주택 선택 시 고려사항1	주택상태: 1~10점 척도	○	
주택 선택 시 고려사항2	거주환경: 1~10점 척도	○	
주택 선택 시 고려사항3	교통환경: 1~10점 척도	○	
대출 여부	대출 활용 = 1, 대출 비활용 = 0	○	
신혼부부 주택정책 선호	주택마련 및 전세, 대출지원 = 1 주택공급 확대 = 0	○	

부부의 독립성 여부는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시 상환조건 없이 부모, 가족, 친척 등으로부터 지원받는지 여부⁴⁾(모형 1)와 부모로부터의 생활비 지원(모형 2)이라는 두 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주거시장이 주택가격이 편차에 따라 이질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인은 크게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주택 특성, 금융 및 정책 특성으로 구성하였으며, 모형 1과 모형 2는 차별적인 독립변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 인구학적 특성

신혼부부 가구주 연령은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생애 주기를 대변한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과 축적된 자산이 증가하며, 소비지출 규모도 증가한다(박종훈 · 이성우, 2016; 통계개발원, 2008). 신혼부부 가구주의 연령 범위가 가구 소득생애주기 중 소득이 증가하는 범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 및 보유자산이 많을 개연성이 높으며, 소비지출 규모 역시 클 것이다. 높은 연령대의 신혼부부 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 그룹보다 외부 금융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40대 이상 신혼부부 가구에 비해 40세 이하 연령대의 그룹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종속변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생활비 지원 역시 40대 이상 연령대에 대비하여 그 이하 연령대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아 종속변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연수가 증가할수록 가구주 연령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결혼연수가 길수록 보유자산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아 외부 지원을 받을 확률이 감소한다. 하지만 주거안정 추구에 따른 자가 점유 확률의 증가는(Feijten and Mulder, 2002) 큰 규모의 주택소비 지출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이창효 · 장성만, 2016). 이러한 상충 관계를 고려하면 결혼연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신혼부부 가구 중 자녀를 출산

한 가구는 가구원 수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가를 선택할 확률이 높으며(박천규 · 이영, 2010; 이채성, 2007; 신영식 · 이현석, 2017; Clark and Dieleman, 1996), 이는 주거 지출의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종속변수에 대해 정(+)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사회경제적 특성

맞벌이를 하는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소득이 우월할 확률이 높으며, 자산축적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윤정득, 2015). 마찬가지로 항상소득⁵⁾이 높을수록 자산축적량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맞벌이를 하거나 항상소득이 높은 가구는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해당 가구들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유인(주거 점유, 생활비)이 감소한다고 추측된다.

주거비 지출, 교육비 지출, 이자비용 지출로 구분된 주거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모형 2에서만 통제하였다. 주거비, 교육비, 이자비용의 지출은 가구의 경제부담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 근거하면(정희주 · 오동훈, 2014), 부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수도권에서 추정값의 크기가(=Magnitude) 비수도권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및 직업수준은 소득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 소득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주로 활용된다. 소득이 통제된 경우에는 다른 관점에서 교육 및 직업수준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교육수준, 이를 통해 높은 직업수준을 점유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지역 내 보다는 지역 외 노동시장에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자가 소유에 부정적인 개연성이 높다(박보림 외, 2013; 박종훈 · 이성우, 2016). 즉, 차가 점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부모로부터 주거 점유 시 지원을 받을 유인이 하락한다. 하지만, 잦은 이동은 이주비 등의 경제적 부담

을 가중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낮은 수준이 직업인 경우에는 직업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지역 내 노동시장에서의 빈번한 이동성향, 자산축적의 비수월성 등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전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혼부부의 교육 및 직업수준과 주거 점유 시 외부로부터의 지원은 사용 자료 및 실증 분석결과에 좌우되리라 판단된다.

3) 주택특성 및 정책특성

주택특성은 주택유형, 주택점유, 주택가격, 주택선택 시 고려사항 변인을 활용하였다. 주택유형 선택 시 아파트가 일반주택에 대비하여 높은 매매가격과 상대적으로 비싼 주거비로 인해 부모의 지원을 받을 확률을 상승시킨다(이창효 · 장성만, 2016). 이를 감안하면 아파트는 종속변수와 양(+)의 상관성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가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차가 점유보다 많은 재정소모가 뒤따른다(안용진 · 김주현, 2016). 따라서 자가 점유 시 부모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상승하여 추정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은 모든 주택을 자가가치로 환산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전세와 월세 가구를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매매 대비 전세가격 지수(72.2)와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전월세전환율(6.8%) 수치를 적용하여 변환하였다.⁶⁾ 주택가치의 증가는 신혼부부 가구가 부담 가능한 경제수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도록 유인할 것으로 추정되어 종속변수와 정(+)의 연관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선택 시 고려사항인 주택상태는 주택규모, 노후도, 방의 수 등을, 거주환경은 보육환경, 의료, 문화, 복지시설, 공원 등의 아메니티(Amenity)를, 교통환경은 대중교통 및 자가용 이용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해당 지표들이 조성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높은 지역일 개연성이 높다(박종훈 · 이성우, 2013; 최막중 · 임영진, 2001). 따라서 추정결과는 종속변수에 정(+)의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정책은 대출상품 활용여부와

신혼부부 가구의 정책선호로 구분하였다. 대출상품을 활용하는 경우, 금융지원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주거 점유 시 신혼부부 가구의 경제부담을 경감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주택정책 선호유형에 대하여 주택마련 및 전세/월세금 대출 지원 확대와 같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중요시하는 가구는 주택공급 확대를 중요시하는 가구에 대비하여 종속변수에 부(-)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5. 분석결과

회귀분석 시 효율적인 추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표본 수의 확보와 연구모형 내 통제된 적정 수의 독립변인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모형 1은 표본 및 독립변인 수에 대한 적합성을 수용할 수 있지만 모형 2는 관찰 가능한 종속변수의 적정 비율을 위반하여 적정 표본 수 확보 및 독립변인을 통제하는 데 제약이 있다. 따라서 모집단을 보정하여 분석모형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형 2에 대한 보정방법을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 관찰 불가능한 표본(=0)의 수가 관찰 가능한 표본(=1)에 비해 압도적이다. 구성 가능한 표본 수를 계산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찰 불가능한 표본에 대해서 20%를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에 관찰 가능한 표본과 결합하였다. 적정 표본 수는 일반적으로 독립변수 당 10~20개, 많게는 30개의 표본이 요구된다(이재열 외, 2005; Wilson Van Voorhis and Morgan, 2007).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연구에 근거하여 수도권은 354가구, 비수도권은 253개 가구로 표본 수를 도출하였다.⁷⁾

1) 기초통계

다음 <표 2>는 본 연구의 기초통계를 나타낸 표이다. 주거점유 시 부모로부터 보조를 받는 신혼부부 가구는 수도권은 약 34.8%, 비수도권은 32.3%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가구의 가구주 연령분포는 수도권과

〈표 2〉 기초통계

항목	수도권		비수도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거점유 시 보조	0.3479	0.4620	0.3230	0.4813
가구주 연령	29세 이하	0.1025	0.2942	0.1088
	30~34세	0.3815	0.4711	0.4010
	35~39세	0.3507	0.4628	0.3304
	40세 이상	0.1653	0.3603	0.1598
결혼연수(년)	3.0133	1.2374	2.6916	1.4146
자녀 유무	0.1466	0.3431	0.1794	0.3950
맞벌이 여부	0.3471	0.4617	0.4874	0.5145
항상소득(만 원)	352.86	44.71	349.18	45.58
항상소득 지급	126,633.25	29,940.53	123,889.72	29,779.83
임시소득(만 원)	50.11	180.85	36.00	156.23
임시소득 지급	37,283.18	183,818.69	24,336.60	78,658.88
총 지출 대비 주거비 ^a	0.1082	0.0656	0.0996	0.0562
총 지출 대비 교육비 ^a	0.0548	0.0590	0.0432	0.0555
총 지출 대비 이자비용 ^a	0.0435	0.0545	0.0318	0.0534
가구주 교육수준	고졸 이하	0.1740	0.3677	0.1964
	전문대 졸	0.1514	0.3477	0.1915
	대졸 이상	0.6746	0.4544	0.6121
가구주 직업수준	경영관리/전문직	0.0326	0.1723	0.0237
	판매서비스, 자영업 등	0.8439	0.3520	0.7490
	기능, 일반직업 등	0.1235	0.3191	0.2273
주택유형	0.5528	0.4822	0.7232	0.4605
점유형태	0.2485	0.4191	0.3904	0.5021
주택가격(천만 원)	17.6450	11.4842	13.3682	8.5834
주택상태	7.6181	1.8019	7.8016	1.9110
거주환경	7.6375	1.8389	7.7970	1.8598
교통환경	7.9627	3.2695	7.8167	4.1551
대출 여부	0.5010	0.4849	0.4045	0.5052
신혼부부 주택정책 선호	0.6321	0.4677	0.6223	0.4990
표본 수	1,450		1,151	

주 1) 위 첨자 a가 붙은 변인은 모형 2에서 활용한 변인임. 두 모형 간 통제변인이 유사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모형 1과 차별적인 변인에 대해서만 기초통계를 제시하였음. 모형 2에서 모형 1과 동일하게 통제된 변인의 기초통계는 큰 차이가 없음을 밝힘. 모형 2의 수도권 표본 수는 1,447이며, 비수도권 표본 수는 1,147임.

비수도권 모두 30~39세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가구의 평균 결혼연수는 수도권은 3.0년, 비수도권은 2.7년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가구는 수도권 약 14.7%, 비수도권은 17.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수도권 가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혼부부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수도권이 약 34.7%, 비수도권이 약 48.7%로 나

타나 비수도권의 맞벌이 가구 비율이 약 14.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직업수준 통계 결과에 빚대어 살펴보면, 맞벌이 여부는 여성이 경제활동 여부로 대별할 수 있다. 상기의 관계를 고려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제한적임을 추측 가능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항상소득은 약 352만 원, 약

349만 원으로 향상소득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총 지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주거비, 교육비, 이자비용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대졸 이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전체적인 신혼부부 가구의 평균적 교육적 성취는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주의 직업수준은 대부분 판매 및 서비스, 사무/기술직 또는 자영업(=수도권: 약 84.3%, 비수도권 약 74.9%)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해당 직종에 대한 수도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가구는 약 55.3%, 비수도권 거주 신혼부부 가구는 약 72.3%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 비율의 차이는 아파트 가격(전월세 포함)의 지역 간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점유형태 역시 자가를 점유하는 신혼부부 가구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대비하여 약 14.1% 포인트 적은 약 24.9%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가구가 비수도권 신혼부부 가구에 대비하여 주거 안정성이 낮다고 파악할 수 있다. 주택 유형 및 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가격은 실제로 수도권이 약 1억 7천만 원, 비수도권은 약 1억 3천만 원으로 관찰되었다. 주택 선택시 고려하는 주요 요소로 통제한 주택상태, 거주환경, 교통환경의 경우에는 모든 지표에서 10점 만점에 약 7.6점 이상의 높은 고려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마련 시 주택자금마련 대출상품을 이용한 가구는 수도권이 약 50.1%, 비수도권이 약 40.5%로 집계되었다. 주택시장에서 형성된 높은 주택 가격이 신혼부부 가구의 대출상품 활용을 유도하였으며,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수도권의 주택시장의 높은 주택가격이 비수도권에 비해 신혼부부 가구에 부담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마련 정책 중 주택마련 및 전월세금 대출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약 63%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응답비율은 신혼부부 가구가 주택 마

련 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은 반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신혼부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회귀분석 결과

신혼부부 가구가 자주적으로 주거를 영위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 점유 시 부모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현재 생활비를 지원받는지 여부로 구분하여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각 모형은 주택시장이 공간적으로 이질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1) 모형 1: 주거 점유

주거 점유 시 부모로부터 지원 여부에 대한 로짓모형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인 연령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40세 이상 그룹에 대비하여 젊은 연령 그룹일수록 주거 점유 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수도권의 경우 모든 연령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29세 이하의 경우에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혼연수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부모 지원여부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비수도권에서만 확보된 것으로 도출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축적된 보유자산이 부모로부터의 지원을 감소시키지만 지역특성에 따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영향력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예측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지원여부와 정(+)의 관계를 보여 앞선 예측과 일치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수도권에서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맞벌이 여부는 소득 및 자산 축적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지원여부에 자유로울 것으로 예측되었고, 추정결과도 동일한 영향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확보하지 못하였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주택점유에 대한 경제적 능력이 수월하

〈표 3〉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항목	수도권		비수도권		그룹 간 차이
	Estimate	Std. Error	Estimate	Std. Error	검정 통계량
절편	1.3164	2.0807	0.8486	1.7881	0.0291
29세 이하	0.9805***	0.2705	1.1994***	0.2826	0.3131
30~34세	0.8169***	0.2028	0.2682	0.2237	3.3023
35~39세	0.5331***	0.2036	0.3157	0.2264	0.5098*
결혼연수	-0.0645	0.0494	-0.0897*	0.0497	0.1293
자녀 유무	0.6688***	0.1779	0.2307	0.1743	3.0942*
맞벌이 여부	-0.0723	0.131	-0.0246	0.1342	0.0647
항상소득	-0.0179	0.0119	-0.0101	0.0102	0.2477
항상소득 제공	0.0000	0.0000	0.0000	0.0000	0.1103
임시소득	0.0004	0.0006	-0.0002	0.0007	0.4299
임시소득 제공	0.000	0.000	0.000*	0.000	0.7987
고졸 이하	-1.0845***	0.2601	-0.3977	0.2665	3.4015*
전문대 졸	-0.2206	0.2013	-0.5115**	0.2165	0.9683
판매서비스, 자영업 등	0.4396	0.3708	0.035	0.4367	0.4988
기능, 일반직업 등	0.6067	0.4188	-0.1281	0.4679	1.3693
주택유형	-0.085	0.1339	-0.0671	0.1694	0.0069
점유형태	-0.2385	0.1538	0.4839***	0.1573	10.7828***
주택가격(천만 원)	0.0338***	0.00591	0.0565***	0.00981	3.9286**
주택상태	0.0108	0.0404	0.0388	0.0445	0.2170
거주환경	-0.1287***	0.0475	-0.1491***	0.0451	0.0970
교통환경	0.1286***	0.0463	0.0335*	0.0184	3.6435*
대출활용 여부	-0.5921***	0.1259	-0.774***	0.148	0.8764
신혼부부 주택정책 선호	-0.1142	0.1285	-0.5119***	0.136	4.5179**
AIC	1,621.45		1,409.81		
-2logL	1,575.45		1,363.81		
Likelihood Ratio	185.94***		169.11***		
Pseudo R-square	0.1056		0.1103		
표본 수	1,450		1,151		

주) Pseudo R-square는 McFadden(1974)이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였음

*** p(0,01) **p(0,05) *p(0,1)

계 충족된다. 하지만 차가 점유보다는 주거 안정 추구에 따른 자가 점유에 대한 맞벌이 가구의 주거목표가 41.2%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난다(국토교통부, 2014). 자가 점유는 차가 점유에 대비하여 높은 비용이 소요되며, 따라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유인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형 설정 단계에서 예측한 영향력이 일부 상쇄되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항상소득과 비수도권 신혼부부 가구의 임시소득은 부모로부터 지원여부와 부(-)의

상관관계, 수도권 신혼부부 가구의 임시소득은 정(+)의 관계를 보였으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항상소득의 경우, 현재 신혼부부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시장 내에서 독립적인 주거 점유가 어렵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주택시장 내 형성된 높은 가격수준이 현재 신혼부부 가구의 가처분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연유로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상실한 것으로 추측된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

혼부부 가구를 위한 금융 및 신혼부부 우대혜택의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가구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졸에 대비하여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일부 그룹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직업수준은 직업수준이 높은 집단에 대비하여 그렇지 못한 집단이 주거 점유 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의 기능 및 일반직업 그룹에서만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선 변인설명에서 기술하였듯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서로 상충된 것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주택특성 변인으로 통제된 주택유형은 아파트인 경우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 대비하여 주거 점유 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지원을 덜 받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어 예상한 영향관계와 상이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주거 점유 시 신혼부부 가구가 부담을 짊어질 확률이 높으나 현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이 국민주택, 민영주택, 임대주택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정부 및 시중 은행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우대 대출상품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변인설명 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높은 아파트 주거비가 일부 영향요인을 분해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점유형태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추정된 파라미터 값의 영향력이 반대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비수도권인 경우에만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수도권의 경우 종속변수와 부(-)의 상관관계, 즉 차가 점유에 대비하여 자가 점유의 경우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예측과 어긋나게 도출된 결과는 수도권 주택시장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주거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2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 2014). 자가를 점유하기에는 높은 시장 가격, 이로 인해 광범위하게 형성된 차가 시장 내에서 신혼부부 가구는 차가 점유를 할 개연성이 높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주택시장 내 투자자의 감소(박종훈·이성우, 2016)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가구의 차가 점유를 유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자가 점유를 통한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부모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영향력을 반감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가격에 따라 주거소비적 측면에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자가 점유 시 부모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차가 점유의 경우에 대비하여 높다고 예측된다.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주거 점유 시 부모로부터 지원여부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가격의 증가가 부모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신혼부부가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신혼부부가 독립적으로 주거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 선택을 하는 경우 고려하는 지표로 통제된 주택 상태, 거주환경, 교통환경 중에서 주택상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 유의수준 내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거주환경, 교통환경은 종속변수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각각 음(-)의 상관관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환경의 경우 주거 점유 시 지원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통환경의 경우에는 차별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거주환경적 요소는 신혼부부가 주거 점유 시 경제적 수용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반면, 교통환경은 경제적 수용범위 외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거 점유시 대출상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결과에 근거하면 주거와 관련된 대출상품의 적극적 홍보 및 확대가 신혼부부 가구로 인한 이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⁸⁾ 신혼부부 주택정책에 대한 선호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확대인 경우 주거 점유시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비수도권에서만 확인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변수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Allison(1999)의 제한한 검정통계량 방법을 활용하였다.⁹⁾ 분석을 수행한 결과 35~39세 연령, 자녀 유무, 고졸 이하인 교육수준, 점유형태, 주택가격, 교통환경, 주택정책 선호 변인에서 변수 간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차이는 주택가격, 교통환경 변인이다. 주택가격의 증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원 확률을 증대시키며 특히 비수도권에서 그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주택시장의 변화에 비수도권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안정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외적 지원을 받는 경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교통환경의 경우에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하여 영향요인이 우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주택 선택 시 수도권 신혼부부 가구는 직주거리, 대중교통 등의 여건을 고려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주거 점유에 따른 지원이 클 개연성이 높다고 예측된다.

(2) 모형2: 생활비 지원

생활비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 가구의 특성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표본 수의 한계로 모형의 안정성을 위해 일부 변인만 통제하였다. 연령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40세 이상 집단에 대비하여 그 미만 연령대는 부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생애주기 이론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 가구는 외벌이를 하는 가구에 대비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지원과 정(+)의 관계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룹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개별 변수별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구의 소득을 증진한다면(Tresa, 1983; Cancian and Reed, 1998), 부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이 외벌이 가구에 대비하여 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분석결과는 수용가능하게 도출되었으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대비하여 소득탄력성이 크고(윤정숙, 2015) 저소득 남편을 가진 가구에서 맞벌이를 통한 가구소득 증진유인이 존재한다고 추론한다면(Mincer, 1974),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확률이 큰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직업수준은 수도권 일부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인 변인의 경향성은 직업수준이 높은 경우에 대비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 부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지출 대비 주거비, 교육비, 이자비용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총 지출 대비 개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부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도권에서는 주거비와 교육비의 증가, 비수도권에서는 주거비와 이자비용의 증가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록 그룹 간 개별 변수의 차이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추정 파라미터의 크기(=Magnitude)를 간접적으로 비교하면, 교육비의 증가가 수도권에서는 생활비를 지원받는 주요 요인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이자비용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주거비의 경우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생활비 지원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부담의 해소와 함께 수도권에서는 교육비 완화를 위한 정책이, 비수도권에서는 이자비용에 따른 부채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한계효과

〈표 3〉과 〈표 4〉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종속변수

〈표 4〉 회귀분석 결과: 모형 2

항목	수도권		비수도권		그룹 간 차이
	Estimate	Std. Error	Estimate	Std. Error	검정 통계량
절편	-3.0578***	0.8222	-4.4478***	1.6543	0.5661
29세 이하	1.5607**	0.6152	1.8731*	0.9873	0.0721
30~34세	1.3155***	0.4903	1.5708*	0.9339	0.0586
35~39세	1.1601**	0.518	1.2939	0.9557	0.0151
맞벌이 여부	0.3901	0.3054	-0.4928	0.3775	3.3062*
판매서비스, 자영업 등	-0.6833	0.6946	0.5951	1.3164	0.7377
기능, 일반작업 등	2.7159*	1.632	18.5028	1530	0.0001
총 지출 대비 주거비	4.0431**	1.8596	5.8752**	2.6849	0.3147
총 지출 대비 교육비	7.0956***	2.2551	1.1572	3.2532	2.2506
총 지출 대비 이자비용	2.8614	2.2892	6.8716*	3.5968	0.8847
AIC	311.74		219.99		
-2logL	291.74		199.99		
Likelihood Ratio	38.13***		35.67***		
Pseudo R-square	0.1156		0.1514		
표본 수	354		253		

주) Pseudo R-square는 McFadden이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였음
 *** p<0.01 **p<0.05 *p<0.1

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¹⁰⁾을 수행하였다. 먼저 주택가격이 10%로 증가하는 경우, 부모의 지원은 수도권은 1.34%, 비수도권은 1.6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환경의 경우에는 교통환경에 대한 선호가 10% 증가하는 경우 수도권은 2.31%, 비수도권은 0.5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수도권의 경우 부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대출상품 활용에 대한 한계효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각 13.09%, 16.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 가구의 대출상품을 활용 제고 및 주거 점유 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가계지출에 대해 주거비, 교육비, 이자비용에 대한 한계효과를 살펴보았다. 세 지표 모두 총 지출 대비 지출계정의 비중이 10% 증가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는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도권의 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부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을 확률을 0.61% 증가시켜 비수도권의 0.07%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신혼부부 가구의 교육비 지출에 따른 주

〈표 5〉 한계효과

항목	모형 1		모형 2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가격	1.34%	1.66%	총 지출 대비 주거비	0.68%	0.90%
교통환경	2.31%	0.57%	총 지출 대비 교육비	0.61%	0.07%
대출상품 활용	-13.09%	-16.22%	총 지출 대비 이자비용	0.21%	0.34%

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 결론

신혼부부 가구는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토대가 되는 계층이다. 하지만 빈번한 주거이동 및 점유형태 전환, 주택시장의 높은 주택가격과 상반되는 낮은 가구 소득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경제적 안정을 위한 공공 시스템의 부재는 부모의 자산 이전으로 보완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의 자산 이전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독립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미래 자산을 소진한다는 측면에서 부모 가계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 경제적 차원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에 호응하는 제도권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은 관점에서의 연구는 극히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거경제적 차원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본 연구는 그 시의성과 활용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혼부부 가구의 독립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연구모형 정립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신혼부부 가구패널조사 201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부모의 주거 지원이 주택시장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이항로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로부터 주거 점유시 지원 여부에 대해 분석한 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 간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점유형태와 일부 변인을 제외하고는 경향성은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주거 점유시 지원여부에 대한 점유형태의 경향성의 차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형성된 주택의 투자 가치 변화와 주거 안정성에 대한 지역 간 점유형태 선호 차이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주택가격의 증가는 부모의 금융 지원을 강제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경감하기 위한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되며, 한편으로는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부모의 지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권 차원의 대출 상품 지원 확대도 요구된다. 주거선택 시 고려하는 거주 및 교통환경에 대해서는 선호되는 교통환경을 위해 주거 점유 시 부모의 금융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그 경향이 크다는 것을 그룹 간 차이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간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도권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을 교통 접

근성이 우월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 공급된 지역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도 동반되는 것이 요구된다.

생활비 지원 모형의 경우에는 주거, 교육, 이자비용에 대한 가계 지출이 증가할수록 지원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거비와 교육비가,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주거비와 이자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분석결과에 근거하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출 완화를 위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출상환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을 완화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조사 항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에서는 조사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이 있어 유의미한 변수일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종속변수의 조사항목이 부모로부터 지원여부만을 담보하는 항목이 아닌 한계도 존재한다. 둘째, 종속변수와 일부 독립변인 간 동시상관성 문제가 발생할 나타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째, 모형 2의 경우, 종속변수의 비율이 편향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요구되었다. 조정과정을 통해 분석결과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었으나, 가용한 표본의 상당수를 활용하지 못한 점, 다양한 독립변인을 통제하지 못한 제약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연차별로 부모로부터 지원의 감소 유무를 그룹화하여 비교하여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독립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소득변인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소득변인이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소득수준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다수의 연구가 주거안정과 자녀출산과의 상관성에 주목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향후 자녀출산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모형의 한계 중 연구모형과 관련하여 일부 발생할 수 있는 상관성을 보정하기 위해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활용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주

- 1) Box-Cox Transformation(1964)는 원 데이터(Raw Data)를 수학적 변환을 통해 정규분포 형태로 만들어주는 방법임. Box-Cox 변환을 종속변수에 적용하는 경우 잔차가 왜곡된 분포의 특성을 보여 최소사승모형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보정하여 효율적인 추정을 할 수 있음.
- 2) 분산팽창인자(VIF)를 활용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자가 통계적 분포를 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의 경험적 판단(Rule of Thumb)에 의존함. 본 연구에서는 10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활용하였음(Gujarati and Porter, 2009).
- 3) 주택법 5조 3항에 의거하면, 혼인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를 신혼부부 가구로 분류함(안용진·김주현, 2016).
- 4) 주거 점유시 보조 여부의 항목질문은 부모, 가족, 친척, 지인으로부터 상환불필요한 지원을 받은 경우이며,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이를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대별하여 활용함.
- 5) 향상소득 추정결과는 지면이 많은 연유로 생략하였음. 향상소득 추정결과가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연락하기를 권함. 향상소득 추정은 남녀 가구원 연령 및 교육수준, 남성 지원, 생활비 지원, 수도권 여부로 구성하여 분석을 수행했음을 밝힘.
- 6)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을 자가가치로 전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음. 따라서 전세와 월세에 대한 가치 전환이 필요함.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전세 보증금에 역수를 취하여 자가가치를 도출하였음. 월세의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 수식을 변환하여 전세가격을 도출하고 도출된 값에 전세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자가가치를 산출하였음. 전월세 전환율 식은 아래와 같음
전월세전환율=(월세×12개월/(전세-월세보증금)×100
- 7) 최소확보 표본 수를 산출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음
 $N=10k/p$ 여기서 k 는 독립변수의 수를, p 는 관찰 가능 또는 불가능한 집단 중 수가 적은 집단의 비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4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있고, 관찰가능한 집단이 전체 표본 중 20%라면, 최소확보 표본 수(N)는 $\frac{10 \times 4}{0.2}=200$ 이다. 만약, N 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100개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Long, 1997).
- 8) 신혼부부가 주거 마련시 부모의 지원을 받은 후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대출상품을 활용할 개연성도 존재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대출상품 활용이 부모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가정하였음

9) Allison(1999)이 제안한 검정통계량 식은 다음과 같음.

$$W = \frac{(\beta_1 - \beta_2)^2}{[\text{Standard Error}(\beta_1)]^2 + [\text{Standard Error}(\beta_2)]^2 - 2\text{cov}(\beta_1, \beta_2)}$$

10)

$$\frac{\partial \text{Prob}(y=1)}{\partial x_k} = \frac{e^{\sum_{i=1}^k \beta_i x_i}}{(1 + e^{\sum_{i=1}^k \beta_i x_i})} \times \frac{1}{(1 + e^{\sum_{i=1}^k \beta_i x_i})} \beta_k = P(1-P)\beta_k$$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4, 『2014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 조사 보고서』, 국토교통부.

김준형·최막중, 2009, 지역주택가격이 임차가구의 점유 형태와 주거입지 이동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4(4), pp.109-118.

김희삼, 2009, 『한국의 세대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남순현·한성열, 2003, 신혼기 부부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결혼 후 친밀감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2(3), pp.505-523.

마강래·강은택, 2011, 최초 주택구입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6(1), pp.51-63.

마강래·권요규, 2013, 주택자산의 세대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21(2), pp.169-188.

박보림·김준형·최막중, 2013, 1인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연령 및 소득변인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8(1), pp.149-163.

박중훈·이성우, 2013,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주의 거주불일치 선택 요인, 『서울도시연구』, 14(1), pp.1-22.

박중훈·이성우, 2016, 주택의 투자가치와 시장가치의 변화가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파트 유형을 중심으로, 91, pp.19-40.

박천규·이영, 2010, 결혼 후 3년 이내 출산이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18(1), pp.27-39.

배호중·한창근, 2016,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36(3), pp.204-238.

서미숙, 2013, 주택가격 변화에 따른 여성 출산율에 관한 연구, 『여성경제연구』, 10(1), pp.63-79.

신영식·이현석, 2017, 신혼부부의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부동산·도시연구』, 9(2), pp.135-150.

- 안용진 · 김주현, 2016, 주택공급 우선순위에 따른 신혼가
구 주택 구매의향 영향요인 차이 분석, 『주거환경』,
14(3), pp.119-131.
- 윤정득, 2015,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자산효과 차이
분석, 『부동산학보』, 63, pp.130-144.
- 이성우 · 윤성도 · 박지영 · 민성희, 2005, 『로짓 · 프로빗모
형 응용』, 박영사.
- 이재열 · 강상진 · 방하남 · 이명진 · 박경숙 · 은기수 · 한
준 · 이윤석, 2005,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 원리와
실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주형 · 임종현 · 이천기, 2009,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의 점
유형태 및 유형 선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4(3),
pp.79-93.
- 이창효 · 장성만, 2016, 점유형태 선택과 주거환경 및 주거
의식의 관련성 분석: 수도권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
로, 『지역연구』, 32(2), pp.31-44.
- 이채성, 2007, 가구주 특성에 따른 주택점유형태 차이, 『대
한건축학회논문집』, 23(2), pp.119-127.
- 임유진, 2008, 원가족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이 신혼
기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
사논문.
- 정희주 · 오동훈, 2014, 청년세대 1·2인 가구의 주택점유형
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9(2), pp.95-113.
- 최막중 · 임영진, 2001,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입지 및 주
택유형 수요에 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36(3),
pp.69-81.
- 최유미 · 남진, 2008, 서울시 가구특성별 주거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3(3), pp.195-210.
- 통계개발원, 2008, 『우리나라 가구의 생애소득 및 생애지출
현황과 소득분배 분석: 『가계조사』를 이용한 의사매
널을 중심으로』, 통계개발원.
- 한규섭, 2014, TV 드라마에 나타난 결혼관에 관한 기호학적
연구: JTBC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 현대경제연구원, 2014, 『출산을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 현
대경제연구원.
- Allison, 1999, Comparing Logit and Probit Coefficient
Across Group,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8(2), pp.186-208.
- Box, G. and Cox, D., 1964, An Analysis of
transformations,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26(2), pp.211-252.
- Cancian, M. and Reed, D., 1998, Assessing the effects
of wives' earnings on family income inequa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1), pp.73-
79.
- Clark, W. A. V. and Dieleman, F. M., 1996, 『Households
and Housing: Choice and Outcomes in the
Housing Market』, New Jersey, 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 Goodman, A. C., 1988, An econometric model of
housing price, permanent income, tenure
choice, and housing demand, 『Journal of Urban
Economics』, 23(3), pp.327-353.
- Gujarati, D. and Porter, D., 2009, 『Basic Econometrics』,
5th edition, McGraw Hill.
- Helderman, A. and Mulder, C. H., 2007,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omeownership:
The Roles of Gift and Continuities in Housing
Market Characteristics, 『Urban Studies』, 44(2),
pp.231-247.
- Kurz, K., 2004, Labour Market Position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Home Ownership: a Longitudinal
Analysis for West German Birth Cohort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0(2), pp.141-159.
- Maddala, G. S., 1983,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ncer, 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BER Books.
- Lee, S. W., Myers, D. and Park, H. S., 2000, An
Econometric model of homeownership: Single-
family and multi family housing option,
『Environmental and Planning A』, 32(11), pp.1959-
1976.
- Liao, T. F., 1994, 『Interpreting Probability Models Logit,
Probit, and Other Generalized Model』, Sage

University Paper.

Long J. S., 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Peduzzi P, Concato J, Kemper E, Holford T.R., Feinstein A. R., 1996, A simulation study of the number of events per variable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49, pp.1373-1379.

Treas, J., 1987, The effect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3, pp.259-288.

Wilson VanVoorhis, C. R. and Morgan, B. L., 2008, Understanding power and rules of thumb for determining sample sizes, 『Tutorials in Quantitative Method for Psychology』 3(2), pp.43-50.

국민은행 <http://www.kab.co.kr>

주거누리, <http://hnuri.go.kr>

한국감정원, <http://nland.kbstar.com>

계재신청 2017.7.27

심사일자 2017.7.29

계재확정 2017.9.18

주저자: 박중훈, 교신저자: 이성우